

관광 관련 제약요인이 장애인의 관광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eligman의 무력감이론의 적용*

Influences of Travel Constraints on the Disabled People's Intention to Travel: An Application of Seligman's Helplessness Theory

이 봉 구**

Lee, Bong-Koo

ABSTRACT

Disabled people have been generally invisible in the context of travel, though much improvement has made in legal and social environments.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with a convenient sample of disabled peopl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constraints, learned helplessness, and intention to travel. Results revealed that three sub-dimensions of constraints did not exert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intention to travel. However, two of the three dimensions(i.e., intrinsic and environmental) wer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tial factors on learned helplessness. The helplessness exerted, in tur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travel. These results and following discussions will facilitate more discourse on the travel behavior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핵심용어(Key words) : 장애인 관광시장(The disabled tourist market),
제약요인(Constraints or barriers),
무력감이론(Theory of helplessness),
관광 참여 의도(Intention to travel)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1-B00850)

** 동의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장애인관광, 관광객행동, 지역주민의 태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e-mail: bongkoo1@deu.ac.kr

I. 서론

관광은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자아 실현 및 사회적응 과정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응에 요구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 사회 통합 달성, 사회적 형평성 실현 등과 같은 편익을 제공한다. 관광이 지닌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최근 UN(2003)과 UNESCAP(2000)으로 하여금 관광권(觀光權)을 인간의 권리 중 하나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 냈다.

관광권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인해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y)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장애인 규모의 지속적 증가이다. 지구상의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의 5%에서 20%로 추정되며(UNESCAP, 2000),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 6월말 현재 약 450만 명, 많게는 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www.ablenews.co.kr: www.mohw.go.kr: 박중희·박경일·최정자, 2004). 또한 현대인의 생활이 각종 위험(예: 산업재해, 질병, 교통사고, 약물/알코올 중독, 폭력, 공해 등)에 폭넓게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인 계층이 확대되는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구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둘째, 각 국은 장애인 관련 법률(예: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990, 미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92, 호주),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95, 영국), 장애인복지법(1999, 한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법(1999,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 중, 한국))의 제정·실행을 통해 장애인들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포함(inclusion)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시행해 왔을 뿐 아니라 향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장애인들은 관광활동에의 참여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가시적인 성향을 보여 왔는데 이와 같은 성향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 분야가 장애를 만드는 환경에 의해 조장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관광권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함께 장애인과 관광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대되어 왔다. Smith(1987)의 장애인들이 당면하는 관광 관련 장애(barriers 또는

constraints)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과 관광의 문제를 체계화시킨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Cavinato와 Cuckovich(1992) 그리고 Abeyraine(1995)은 운송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당면하는 제약을, Richter와 Richter(1999)는 윤리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장애인을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와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점차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자들의 관심 분야도 장애인 관광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박종희 등, 2004; Burnett & Baker, 2001; Israeli, 2002; Ray & Ryder, 2003), 관광의 의미(Shaw & Coles, 2004), 관광경험의 해부(Daniels, Rodgers, & Wiggins, 2005; Darcy, 2002; Yau, McKercher, & Packer, 2004), 여행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McKercher, Packer, Yau, & Lam, 2003) 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제약요인은 관광 참여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제약요인 도출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제약 요인과 장애인 관광 참여 사이의 직접적 인과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일부 이론들(예: 타협이론, 무력감이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제약요인은 관광 비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제약요인의 타협 과정과 관련한 연구(Jackson, Crawford, & Godbey, 1993)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Smith(1987)는 관광자들은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요인들에 직면하며, 제약요인이 관광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 특성(예: 관광 참여와 관련하여 가지는 무력감)에 따라 상이하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고찰은 장애인 관광 기회 확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나 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미미한 실정이다.

장애인 관광시장에 대한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들의 관광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들이 관광활동과 관련하여 당면하는 제약요인과 관광 참여 의도 사이에 무력감이 매개하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장애인 관광에 대한 담론을 유도하는 한편 장애인 관광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모형 및 가설

관광활동 참여 의도는 일련의 과정(관광욕구 형성, 정보의 수집, 대안의 평가, 선택)에 작용하는 각종 제약요인을 극복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과정에 작용하는 제약요인의 종류와 강도는 개인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하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느끼는 제약요인의 종류와 강도는 비장애인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므로 (Smith, 1987), 장애인들의 관광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관광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 형성을 제해하는데 작용하는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 관광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Crawford & Godbey, 1987; Jackson & Scott, 1999)가 이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박종희 등, 2004; Abeyraine, 1995; Burnett & Baker, 2001; Cavinato & Cuckovich, 1992; Darcy, 2002; Israeli, 2002; Richter & Richter, 1999; Ray & Ryder, 2003). 관광/여가 제약요인은 관광/여가 활동에의 새로운 참여(의도) 혹은 지속적인 참여(의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차원성의 특성을 가지는 개념으로서 그 차원성에 대해서는 학자 간 의견을 일치시킬 수 없다(Crawford & Godbey, 1987; 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Jackson & Scott, 1999).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제약요인을 최초로 체계화시킨 Smith(1987)는 내재적 제약, 환경적 제약 및 상호작용적 제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Smith(1987)의 연구 이후 일부 학자들이(예: Daniels *et al.*, 2005; McKercher *et al.*, 2003; Shaw & Coles, 2004; Turco, Stumbo, & Garnarcz, 1998; Yau *et al.*, 2004) 제약 요인은 관광 참여를 억제하는데 있어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장애인들의 관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약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Turco 등(1998)은 매력물, 정보 수집, 운송 수단, 숙박 시설과 관련한 제약 요인을 도출하였다. McKercher 등(2003)은 장애인들이 여행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제약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여행사에 만연해 있는 태도적 측면(예: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무관심)과 구조적 측면(예: 단체 여행 판

매 선호 성향)이 장애인관광 과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Yau 등(2004)은 장애인들의 관광 참여를 개인적단계(personal stage), 재연결단계(reconnection stage), 분석단계(analysis stage), 실제 여행단계(physical journey stage), 실행 및 회상단계(implementation and recollection stage)로 구분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각 단계에서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장애에 대한 당사자 및 타인의 태도, 여행 동반자 부재, 안전하지 못한 환경, 관광지 혹은 관광시설에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 부족 혹은 부정확성, 도우미의 부재,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부적당성, 교통시설 이용의 불편성, 도우미에 대한 사례 등과 같이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 한정된 선택권 등)에 직면함을 제시하였다. Shaw와 Coles(2004)는 장애인 소수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관광지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재, 불편한 운송 수단, 의료 및 개인사 도우미 부재, 불안정한 환경, 금전적 어려움, 비우호적인 타인, 접근 가능한 관광지 및 관광 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한 제약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상기한 연구들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제약요인과 관광 참여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는 상기 연구를 통해서도 관광/여가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여가 활동에의 참여가 감소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Jackson 등(1993)은 협상 이론을 제시하였다. Daniels 등(2005)은 협상 이론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당면하는 제약 요인과 이의 협상과정을 고찰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부 장애인은 다양한 제약요인에 직면하였을 때 관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지만 일부는 시간의 변경, 동반자 확보, 보조 장비 확보 등과 같은 협상노력을 통해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관광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에 비해 정책적·사회적환경의 변화로 장애인들의 이동성(mobility)과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향상되어 주된 제약요인이 상당히 제거되었음에도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여전히 관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Seligman(1975)의 “무력감 이론(theory of helplessness)”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하다. Seligman은 어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행동이 다양한 요인(제약요인)에 의해 저지당했을 때 개인은 그 행동에 대해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고 행동을 시도하나 그러한 시도가 되풀이되어 저지되었을 때 그

행동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해당 행동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eligman의 이론을 적용하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관광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과거 직·간접적으로 저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관광 활동에의 참여에 대해 통제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관광 활동에 관한 한 무력감을 느끼며, 궁극적으로는 관광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겠다(Iso-Ahola, 1980; Smith, 1987).

Smith(1987)는 내재적 제약이 통제감 상실과 자신감 상실로 대표되는 무력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편 제약요인들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관광활동 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실증적 입증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관광/여가 제약요인은 관광/여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 협상이나 무력감과 같은 매개 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가정, 즉 관광/여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약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제약요인과 참여 사이에 매개하는 변수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그림 1〉 참조)과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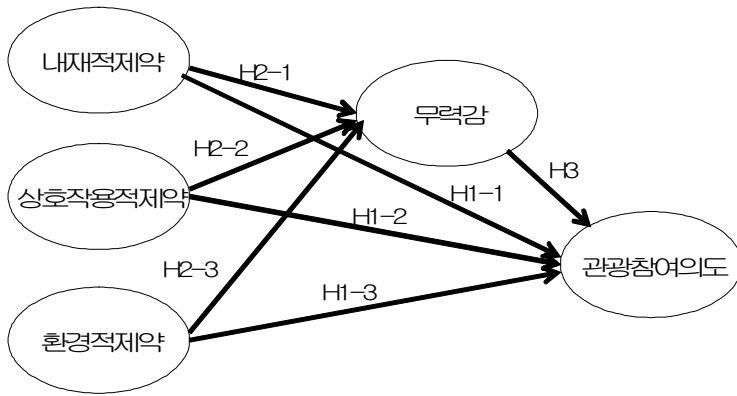
가설 1: 제약요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 정도는 관광 참여 의도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가설 1-1: 내재적 제약요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 정도는 관광 참여 의도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가설 1-2: 상호작용적 제약요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 정도는 관광 참여 의도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가설 1-3: 환경적 제약요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 정도는 관광 참여 의도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제약요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 정도는 관광 관련 무력감에 정(正)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부가설 2-1: 내재적 제약요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 정도는 관광 관련 무력감에 정(正)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가설 2-2: 상호작용적 제약요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 정도는 관광 관련 무력감에 정(正)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가설 2-3: 환경적 제약요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 정도는 관광 관련 무력감에 정(正)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장애인들이 관광과 관련하여 인지하고 있는 무력감 정도는 관광활동 참여 의도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관광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은 Smith(1987)가 제시한 3개의 차원(내재적, 환경적, 상호작용적)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행 연구(Daniels *et al.*, 2005; Darcy, 2002; McKercher *et al.*, 2003; Ray & Ryder, 2003; Shaw & Coles, 2004;

Smith, 1987; Turco *et al.*, 1998; Yau *et al.*, 2004)를 통해 30문항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무력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Seligman(1975)과 선행연구(Dattilo, 2002; Iso-Ahola, 1982)의 고찰을 통해 10문항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관광 참여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Bigne, Sanchez, & Sanchez, 2001; Sirakaya, Petrick, & Choi, 2004; Tian-Cole, Crompton, & Willson, 2002)의 고찰을 통해 세 문항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개인의 장애 관련 특성을 측정하는 항목(예: 장애의 종류, 장애의 정도, 관광활동 참여 시 요구되는 보조 수단의 종류 등)과 인구통계적인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 여부 등)을 묻는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2006년 8월 3일-4일 사이에 부산광역시 소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내용의 이해용이성과 적절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이들의 의견을 반영·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각 개념들(계약요인, 무력감, 관광 참여 의도)은 Likert 형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전적으로 동의함)를 통해 측정되었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취업박람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의 접촉이 용이한 장소를 사전교육을 받은 설문조사원들이 2006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편의추출법에 의해 수집하였다. 읽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고, 시각장애인 등 설문지를 읽기 곤란한 응답자들은 조사원이 읽고 응답을 기록하는 방법을, 또한 수화가 필요한 경우 수화가 가능한 조사원을 활용하였다. 응답자들로부터 충실하고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총 320매의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한 설문지 19매를 제외하고 301매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은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한 항목들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CITC: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를 살펴보았다.

이후 각각의 개념(제약요인, 무력감, 관광 참여 의도)을 이루는 하위 차원(잠재 변수)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주성분분석과 Cronbach α 를 이용한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측정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시된 연구 모형의 적합성과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를 위해서는 SPSS 15.0을, 나머지 단계를 위해서는 AMOS 7.0을 활용하였다.

VI.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대부분은 남성(67.7%)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37.8%), 20대(23.7%), 40대(22.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미혼(54.7%)이었으며,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약 30%로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았으며, 응답자의 약 55%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응답자의 대부분(86.3%)은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80% 정도의 응답자는 배우자 혹은 가족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장애 유형별로는 신체장애(73.6%), 감각장애(19.7%), 인지장애(6.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장애 정도는 2급(35.4%), 1급(28.2%), 3급(22.7%) 순이었으며, 응답자 대부분(76.7%)이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대다수(84%)가 지난 3년 동안 숙박 여행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61.2%는 1회-5회의 여행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21회 이상의 숙박 여행 경험을 가진 응답자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여행 시 응답자들은 대부분 가족/친지/친구(63.7) 혹은 장애인 단체(20.7%)와 함께 여행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행에 대한 정보는 가족/친지/친구(38.4%), 장애인 단체(24.8%), 인터넷(22.4%) 등으로부터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이미 개발된 도구가 아니라 다양한 선행 연구로부터 도출한 항목들을 활용하였으므로, 먼저 해당 항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제약요인, 무력감, 관광 참여 의도)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CITC: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를 통해 살펴보았다(Lu, Lai & Cheng, 2007). 일반적으로 CITC가 .50 미만이면 추후 분석에서 제거할 것이 권장되므로(Lu *et al.*, 2007), 제약요인에서 시간의 부족 등 6개 항목, 무력감에서 “여행과 관련하여 직면하게 되는 각종 제약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다” 등 5개 항목을 제외하였다.

〈표 1〉은 총 11개 항목을 제거한 후 남은 항목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개념(제약요인, 무력감, 관광 참여 의도)을 이루는 하위 차원(잠재 변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제약요인에 대해 배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이겐 값 1이상인 3개의 하위 차원(잠재변수)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총 변량의 54.8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하위차원은 적재항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내재적 제약, 상호작용적 제약, 환경적 제약이라 명명되었다. 무력감과 고나광 참여 의도를 측정하는 항목들은 모두 하나의 차원(아이겐 값 2.92 및 2.03; 전체 변량의 58.33% 및 67.50% 설명)으로 수렴되었다. 한편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는 .76(관광 참여 의도)에서 .89(내재적 제약)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각 잠재변수에 대한 항목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체 측정모형에 대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제약요인, 무력감, 관광 참여 의도에 대한 탐색적요인 분석 결과

	1	2	3	4	5
1. 내재적 제약					
홀로 활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778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709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요구 사항	.647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622				
남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없는 조건	.589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535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521				
막연한 두려움	.492				
여행 중 접하게 되는 각종 규칙	.484				
절대적 안정에 대한 의사의 지시/권고	.483				
2. 상호작용적 제약					
다른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	.808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657				
다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634				
다른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629				
보호자의 지나친 보호	.628				
다른 사람들의 과도한 친절	.615				
다른 사람들의 편견	.612				
사람을 사귄 경험의 부족	.595				
3. 환경적 제약					
이용에 부적합한 여행지 여건	.808				
활동을 위해서 보조기구를 사용해야만 하는 조건	.728				
이용에 불편한 시설	.691				
거동이 불편한 몸	.675				
이용에 불편한 교통수단	.618				
특정한 환경(예: 추위, 더위 등) 회피 필요성	.442				
4. 무력감					
여행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789				
여행은 나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785				
여행을 생각하면 나는 우울해진다.	.776				
여행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766				
나에게 있어 편안한 여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699				

	1	2	3	4	5
5. 관광 참여 의도					
나는 앞으로 여행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한 한 갈 것이다.					.840
나는 여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827
나는 앞으로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것이다.					.796
KMO		.931		.821	.690
Bartlett's χ^2 (df)		3267.18(276)		448.19(10)	213.5(3)
p		.000		.000	.000
Eigen 값	10.12	1.90	1.14	2.92	2.03
% of variance	42.17	7.91	4.77	58.33	67.50
	총 54.85%				
Cronbach's α	.89	.88	.83	.82	.76

전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각 잠재변수에 적재된 항목들의 표준적재치가 .5 이상으로 개념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김계수, 2007), 모형의 적합도는 $\chi^2(454)=958.15$, CMIN/df =2.11, NFI=.803, CFI=.883, TLI=.864, PNFI=.690, IFI=.885, RMSEA=.061 등으로 적합하지 않아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잠재변수에 의한 각 항목의 설명력 (R^2)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이 값이 .50보다 작은 경우 이론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후 분석에서 제거시키는 것이 권장되므로(Lu *et al.*, 2007),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 11개 항목을 제거하였다.

〈표 2〉는 수정된 측정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 개념(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항목의 경로계수는 .5이상($p < .05$)이며, Cronbach's α 값은 .70 이상이므로 개념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각 개념의 분산추출지수는 .5 이상이므로 수렴타당성이, 두 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7).

수정된 측정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2(179)=339.27$ ($p=.000$), CMIN/df=1.895, NFI=.886, CFI=.942, TLI=.925, PNFI=.687, IFI=.943, RMSEA=.055 등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된 측정 모형에 한 확인요인분석 결과는 수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수정된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항 목	표준 적재치	오차	C.R.	Cronbach's α
내재적 제약				
홀로 활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718	.419		.848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719	.423	11.860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요구 사항	.734	.372	12.083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699	.476	11.255	
막연한 두려움	.755	.364	12.312	
상호작용적 제약				
다른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	.723	.467		.870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828	.290	13.613	
다른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760	.335	12.407	
다른 사람들의 과도한 친절	.690	.383	11.245	
다른 사람들의 편견	.778	.315	12.723	
환경적 제약				
이용에 부적합한 여행지 여건	.733	.477		.811
활동을 위해서 보조기구를 사용해야만 하는 조건	.727	.552	10.956	
이용에 불편한 시설	.733	.440	11.507	
거동이 불편한 몸	.681	.562	10.207	
무력감				
.여행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678	.380		.802
여행은 나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719	.300	10.218	
여행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717	.352	10.065	
여행을 생각하면 나는 우울해진다.	.734	.342	9.974	
관광 참여 의도				
앞으로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것이다.	.687	.360		.759
앞으로 여행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한 한 갈 것이다.	.733	.348	8.881	
여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721	.310	8.774	

3. 가설 검증 결과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내재적 제약, 상호작용적 제약, 환경적 제약, 무력감, 관광 참여 의도) 간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최대 우도법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도출된 표준화 계수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3〉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내재적제약	상호작용적 제약	환경적제약	무력감	관광 참여 의도
내재적제약	.562a				
상호작용적제약	.660	.617a			
환경적제약	.684	.527	.560a		
무력감	.633	.538	.292	.596a	
관광참여의도	-.217	-.211	-.009	-.502	.600a

a: 분산추출지수=(Σ 표준적재치²)/[(Σ 표준적재치²) + 측정변수의 오차 합]

연구모형은 적합도 지수는 $\chi^2(179)=339.27$ ($p=.000$), $CMIN/df=1.895$, $NFI=.886$, $CFI=.942$, $TLI=.925$, $PNFI=.687$, $IFI=.943$, $RMSEA=.055$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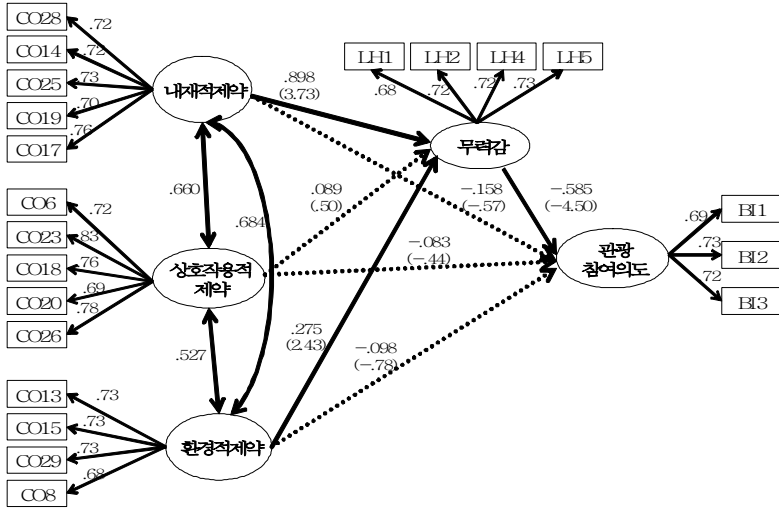
가설 1은 제약요인과 관광 참여의도 간의 부(負)적 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제약요인과 관광 참여 의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C.R. 값)는 각각 $-.158(-.57)$, $-.083(-.44)$, $-.098(-.78)$ 로 예상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1-2, 1-3은 기각되었다.

가설 2는 제약요인과 무력감 간 존재하는 정(正)의 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내재적 제약, 상호작용적 제약, 및 환경적 제약과 무력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C.R. 값)는 각각 $.898(3.73)$, $.089(.50)$, $.275(2.43)$ 로 예상한 바와 같이 정(正)의 관계를 보였으며, 상호작용적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요인은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가설 3은 무력감과 관광 참여 의도 간의 부(負)적 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이 경로에 대한 표준화 계수(C.R. 값)는 $-.585(-4.50)$ 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한 바와 같이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들어 이루어진 법적·제도적 개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된 것과 더불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서의 장애인 관광 시장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대로 장애인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chi^2(179) = 339.27$ ($p = .000$), CMIN/df = 1.895, NFI = .886, CFI = .942, TLI = .925, PNFI = .687, IFI = .943, RMSEA = .055

→ : $p < .05$

→ : $p > .05$

주: CO28: 홀로 활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CO14: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CO25: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요구 사항; CO19: 활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CO17: 막연한 두려움; CO6: 다른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 CO23: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CO18: 다른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CO20: 다른 사람들의 과도한 친절; CO26: 다른 사람들의 편견; CO13: 이용에 부적합한 여행지 여건(예: 언덕, 울퉁불퉁한 길, 좁은 길 등); CO15: 활동을 위해서 보조기구를 사용해야만 하는 조건; CO29: 이용에 불편한 시설; CO8: 거동이 불편한 몸; LH1: 여행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LH2: 여행은 나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LH4: 여행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LH5: 여행을 생각하면 나는 우울해진다.; BI1: 나는 앞으로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것이다.; BI2: 나는 앞으로 여행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한 한 갈 것이다.; BI3: 나는 여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림 2〉 연구 모형의 분석 결과

〈표 4〉 가설 검증 결과

구분	경로	경로계수	C.R. 값	검증 결과
가설 1-1	내재적 제약 → 관광 참여의도	-.158	.57	기각
가설 1-2	상호작용적 제약 → 관광 참여의도	-.083	.44	기각
가설 1-3	환경적 제약 → 관광 참여의도	-.098	.78	기각
가설 2-1	내재적 제약 → 무력감	.898	3.73	채택
가설 2-2	상호작용적 제약 → 무력감	.089	.50	기각
가설 2-3	환경적 제약 → 무력감	.275	2.43	채택
가설 3	무력감 → 관광 참여의도	-.585	-4.50	채택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관광 활동 참여(의도)에 직접적이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광 참여(의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Burnett & Baker, 2001; Daniels *et al.*, 2005; McKercher *et al.*, 2003; Ray & Ryder, 2003; Shaw & Cole, 2004; Smith, 1987; Turco *et al.*, 1998; Yau *et al.*, 2004)과는 달리 제약 요인과 장애인 관광 참여 사이의 간접적 인과 관계를 주장하는 일부 이론들(예: 타협이론, 무력감이론 등)에 근거하여 제약요인, 무력감, 관광 참여 의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들의 관광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들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재적, 상호작용적, 환경적 제약은 관광/여가 활동 참여의도에 부(負)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광/여가 제약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Burnett & Baker, 2001; Daniels *et al.*, 2005; McKercher *et al.*, 2003; Ray & Ryder, 2003; Shaw & Cole, 2004; Smith, 1987; Turco *et al.*, 1998; Yau *et al.*, 2004)의 일반적 가정인 관광/여가 제약요인과 관광/여가 참여(의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기보다는 매개변수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관광/여가 제약요인과 관광/여가 참여(의도) 사이의 관련성을 협상 전략을 매개 변수로 하여 살펴 본 Daniels *et al.*,(2005)과 Jackson *et al.*,(1993)의 연구, 성격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 Henderson, Stalnaker, 그리고 Taylor(1988)의 연구, 그리고 무력감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 본 연구의 타당성

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모든 제약 요인은 관광과 관련한 장애인의 무력감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상호작용적 제약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력감에의 영향은 내재적 제약이 환경적 제약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이 선호하는 대상(예: 여행)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할 때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하여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해당 행동 실행에 대한 개인적 통제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Seligman(1975)의 무력감 이론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장애인은 관광 참여와 관련하여 과거 각종 제약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이는 이들로 하여금 관광활동참여와 관련하여 통제감 및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관광과 관련하여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상호작용적 제약이 무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 결과라 사료되어진다.

셋째, 무력감은 관광 참여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負)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력감은 그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통제감 및 자신감 상실이란 특성으로 인해 특정 행동(예: 관광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켜 해당 행동에의 참여를 중지하게 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Dattilo, 2002), 본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관광과 관련하여 정책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들로 하여금 관광과 관련하여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내재적 제약과 환경적 제약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내재적 제약(특히 장애인 자신의 태도)이 무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예: 바우처 제도, 동반자 할인 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두려워 할 사항이 아님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재적 제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또 다른 사항으로는 장애인의 관광/여가 서비스 욕구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들의 관광/여가 욕구를 무시한다거나 혹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segregation)과 같은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의 관광/여가 서비스 욕구를 비장애인의 그것과 구분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장애인들로 하여금 관광활동에의 참여가 혼자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들이 관광 활동 참여에 있어 환경적 제약을 느끼기 못할 정도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지 및 관광 시설에 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인들이 관광과 관련하여 가지게 되는 무력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 첫째, 표본을 편의추출법에 의거 추출하였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 개념(제약요인, 무력감, 관광 참여 의도)의 기술적 통계 측면에서 “보통 사람(regular folks)”(Stein, 1996)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비적극적인 장애인들까지도 표본에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인 관광 시장을 살펴 본 다른 연구(Burnett & Baker, 2001; Daniels *et al.*, 2005; McKercher *et al.*, 2003; Ray & Ryder, 2003; Shaw & Cole, 2004; Smith, 1987; Turco *et al.*, 1998; Yau *et al.*, 2004)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동일 시장으로 취급하였으나 장애 유형에 따라 특성 및 활동 범주가 상이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 세분 시장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관광 활동에의 참여는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은 다른 계층에 비해 관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경험과 의견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본 연구가 장애인과 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계수(2007).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박종희·박경일·최정자(2004). 장애인의 관광참여 동기와 장애에 관한 탐색적 조사. 제 55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논문발표대회 논문집 (pp.181-194), 2004. 2. 6. -2. 7.
- Abeyraine, R. I.(1995). Proposals and guidelines for the carriage of elderly and disabled persons by air. *Journal of Travel Research*, 33(3), 52-59.
- Bigne, J., Sanchez, M., & Sanchez, J.(2001). Tourism image, evaluation variables and after purchase behavior: Inter-relationships. *Tourism Management*22(6), 607-616.
- Burnett, J. J. & Baker, H. B.(2001). Assessing the travel related behaviors of the mobility-disabled consumer.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 4-11.
- Cavinato, J. L., & Cuckovich, M. L.(1992). Transportation and tourism for the disabled: An assessment. *Transportation Journal*, 31(3), 46-53.
- Crawford, D. W.,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8.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4, 309-320.
- Daniels, M. J., Rodgers, E. D., & Wiggins, B. P.(2005). "Travel Tales": An interpretive analysis of constraints and negotiations to pleasure travel as experienced by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Tourism Management*26(6), 919-930.
- Darcy, D.(2002). Marginalized participation: Physical disability, high support needs and tourism.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9(1), 61-72.
- Dattilo, J.(2002). Inclusive leisure service (2nd ed.). Venture Publishing, Inc.: State College, PA.
- Henderson, K. A., Stalnaker, D., & Taylor, C.(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1), 69-80.
- Iso-Ahola, S. E.(1982). Towards a social psychological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 256-262.
- Israeli, A. A.(2002).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importance of site accessibility factors for disabled tourist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1), 101-104.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1993). Negotiations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5, 1-11.
- Jackson, E. L., & Scott, D.(1999). Constraints to leisure. In E. L. Jackson, & T. L. Burton (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p. 299-321).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 Lu, C. S., Lai, K. H., & Cheng, T. C. E.(2007).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evaluate the intention of shippers to use Internet services in liner shipping.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80, 845-867.
- McKercher, B., Packer, T., Yau, M. K., & Lam, P.(2003). Travel agents as facilitators or inhibitors of travel: Percep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urism Management*, 24, 465-474.
- Ray, N. M., & Ryder, M. E.(2003). "Eibilities" tourism: An exploratory discussion of the travel needs and motivations of the mobility-disabled. *Tourism Management*, 24, 57-72.
- Richter, L. K., & Richter, W. L.(1999). Ethics challenges: Health, safety and accessibility in international travel and tourism. *Public Personnel Management* 28(4), 595-615.
- Seligman, M. E. P.(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 H. Freeman.
- Shaw, G., & Coles, T.(2004). Disability, holiday making and the tourism industry in the U.K.: A preliminary survey. *Tourism Management*, 25, 397-403.
- Sirakaya, E., Petrick, J., & Choi, H. S.(2004). The role of mood on tourism product evalu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517-539.
- Smith, R. W.(1987). Leisure of disabled tourists: Barriers to trav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4(3), 376-389.
- Stein, J.(1996). He's the right metaphor for the job. *The Los Angeles Times*, 10 Oct., p. 1.
- Tian-Cole, S., Crompton, J. L., & Willson, V. L.(200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among visitors to a wildlife refug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1-24.
- Turco, D. M., Stumbo, N., & Garnarcz, J.(1998). Tourism constrain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arks and Recreation*, 33(9), 78-84.

UN(2003). Barrier-free touris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NY: United Nations.

UNESCAP(2000). Conditions to promote barrier-free tourism for people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Presentation at the National Workshop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China, Tianjin, China.

www.ablenews.co.kr

www.mohw.go.kr

Yau, M. K., McKercher, B., & Packer, T. L.(2004). Traveling with disability: More than an access issu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4), 946-960.

2007년 11월 28일 접수

2008년 3월 19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 심사 룹